

##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믿음과 실제 성격과의 관계

조소현      서은국      노연정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보편적인 성격 검사로 알려진 성격의 5 요인과 혈액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의 5 요인이 아닌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 형용사로 성격을 측정할 경우에는 혈액형에 따른 성격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 가지 혈액형 중에서도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의 수렴도가 높은 A형과 B형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에 대한 믿음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믿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성격을 보고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믿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으로 성격을 측정할 경우에도 5 요인과 마찬가지로 혈액형에 따른 유의미한 성격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혈액형과 성격 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혈액형과 성격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실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한계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혈액형, 성격,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 성격의 5 요인(Big5), 믿음

누구나 살아오면서 몇 번쯤은 혈액형이나 별자리, 사주 등을 가지고 개인의 성격특징이 어떨 지에 대해 예측하는 대중적인 성격 유형학의 내용들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미 또는 심심풀이로 이러한 유사 과학적인(pseudo-scientific) 성격 유형 테스트를 즐겨한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그러한 류의 자료들을 접할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였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이 자신을 어

는 정도 설명해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격이라는 심리학의 중요 영역과의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에 대한 과학적인 심리학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매우 일시적이고 비과학적인 현상으로서만 간주해왔을 뿐, 연구 대상으로는 생각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의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러

한 현상이 실제로 사람들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사람들이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을 선호하고 믿는 이유

Baumeister(1998)는 “self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외부적 원천으로부터 self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욕구는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위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유사 과학적인 성격 테스트를 즐겨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 분류를 믿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개념으로 확인 편파(Confirmation bias)와 바넘 효과(Barnum effect)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과거에 대한 다양하고 종종 상반되기도 하는 복잡하고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self)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 있어 주어진 가설과 일치하는 자료만 찾고 불일치하는 자료는 피하는 확인 편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Davies, 1997; Oakhill, & Gamham, 1993; White, Brockett, & Overstreet, 1993). 즉, 사람들이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을 접할 때는 전문적인 성격 검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때보다 처음부터 결과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자신이 믿고 싶은 부분과 일치하는 자료만 찾아서 그 순간에 활성화된 편향된 특징이 마치 실제 자기의 전체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Davies, 1997).

바넘 효과란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막연하고 일반적인 성격묘사(예. 당신은 종종 외향적이고 불임성이 있지만 가끔은 내향적이고 주의깊고 과묵할 때도 있습니다)를 보통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잘 설명해주는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한다(Meehl, 1956).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적인 특징을 개인의 특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사람들은 바넘 효과로 인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타당하다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넘 효과는 왜 많은 사람들이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이 “잘 들어 맞는다”라고 믿게 되는 지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의 대중적 파급효과의 현황

여러 가지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 중에서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중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혈액형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사람들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특징에 대한 자료를 접할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에 대해 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자신을 잘 설명해준다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된 “혈액형 인간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6064명의 참여자 중 43.6%가 “일리가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sup>1)</sup>.

언제부턴가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진짜 그 사람의 혈액형을 묻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신은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의 자기 소개란부터 심지어는 이력서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형이 마치 개인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의 파급효과는 점점 강력해져, 어느새 혈액형과 성격을 연결 짓는 내용은 심심풀이용 읽을거리가 아닌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특정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이하 혈액형 고정관념)을 소재로 한 노래와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자주 보여지고 있다.

####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그렇다면 유독 혈액형이 다른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들 보다는 개인의 성격 차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혈액형이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유전적

1) 2005.2.16 (수) 15 :01 한겨레  
[http : //www.amc.seoul.kr/~swkwon/QTF-3bltype.html](http://www.amc.seoul.kr/~swkwon/QTF-3bltype.html)

특징으로 인해 사람들은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이 별자리나 사주 같은 다른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 보다는 좀더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학계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혈액형과 성격과의 연관성이 검증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Eysenck, 1982; Frukawa, 1927; Marutham & Indira, 1990). 본격적인 혈액형과 성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인 Furukawa(1927)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혈액형이 기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A형인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고, B형인 사람들은 활발하고 솔직하며, O형인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AB형인 사람들은 모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Thompson(1936)은 Furukawa의 연구에 있어서의 방법론과 통계법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혈액형과 성격, 지능, 정서 간에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1970, 80년대에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보고하는 결과들은 대부분 매우 모호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Cattell, Brackenridge, Case, Propert와 Sheeh(1980)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 기질을 기반으로 한다는 Cattell의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형과 성격특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불안 수준에 있어서 O형과 A형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Catell, Brackenridge, Case, Propert & Sheehy, 1980). 이어서 Eysenck(1982)가 20개국의 연구를 개관한 결과 한 나라의 불안과 신경증 수준은 그 나라 인구에서의 B형의 비율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Beardmore와 Karimi-Booshehr(1983)가 Nature 지에 사회계층과 혈액형 분포 간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듬해에 바로 이에 대한 비판논문이 게재되어 Beardmore와 Karimi-Booshehr의 연구의 통계적 결과는 우연의 산물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유전자의 능력에서 원인을 찾을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다(Mascie-Taylor & McManus, 1984).

가장 최근의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Cramer와 Imai(2002), Rogers와 Glendon(2003)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는 각각 캐나다와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성격의 기질적 요인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격의 5요인 모델과 혈액형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격의 5요인 모델은 현재로써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성격 검사로, 성격이 크게 외향성(Extraversion), 원만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다섯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Costa & McCrae, 1992a). 두 연구는 이전의 혈액형별 성격 연구들이 서로 다른 성격 척도를 사용하여 결과의 비교가 어려웠음을 감안하여 성격의 5요인 모델로만 성격을 측정하였고, Rogers와 Glendon(2003)은 기존의 일관되지 않은 연구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혈액형 집단 별로 표본수를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세웠던 주된 가설은 B형인 사람들이 다른 혈액형의 사람들보다 신경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며, O형인 사람들이 외향성 점수가 더 높고, A형인 사람들이 다른 혈액형들에 비해 원만성이 높고 AB형인 사람들은 성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에서 혈액형과 성격의 5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권에서의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의 효과

하지만 이러한 서양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믿음(lay theory)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혈액형과 성격의 생물학적 기반 간에는 실질적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믿음이 널리 공유되어 있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믿음 자체가 실제 혈액형에 따른 성격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혈액형에 따라 다른 성격특징을 나타낼 것이라는 정보를 반복하여 접하게 되면, 자신의 성격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릴 때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

건에 대해서 특정한 기대를 갖게 되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사람들이 자연히 자신들의 행동을 그러한 단서에 맞게 바뀌는 경향을 말한다(Bordens & Horowitz, 2001; Snyder, 1984). 즉, 이러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통해, 원래는 실존하지 않고 믿음의 형태로 존재했던 기대가 현실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혈액형에 대한 고정관념의 경우도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기대” 또는 “믿음”의 역할을 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고려해볼 때,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또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혈액형에 대한 일반인들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 연구와는 달리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혈액형이 성격의 생물학적 기반으로 작용해서 그러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다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의 결과로써 실제 성격에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다.

즉, 사람들의 혈액형 고정관념에 대한 믿음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그러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그 혈액형에 해당하는 성격특징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실제 성격과 혈액형과의 관계에 대한 외국 연구들은 꽤 있었지만(Beardmore & Karimi-Booshehri, 1983; Cramer & Imaike, 2002; Rogers & Glendon, 2003),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이전의 외국 연구들도 혈액형과 기존의 성격 개념 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의 실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현재 성격의 기질적 요인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5요인과 혈액형 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액형 성격유형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격의 5요인이 아닌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 형용사로 개인의 성격을 측정했을 때, 혈액형에 따른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차이가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에 대한 믿음 수준의 영향을 받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형 성격 유형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 연구 1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서양 연구들에서는 혈액형과 성격의 5요인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Cramer & Imaike, 2002; Rogers & Glendon, 2003). 연구 1에서는 이러한 서양의 연구 결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혈액형별 성격특징 중 기준에 많이 제안되었던 B형인 사람들이 다른 혈액형의 사람들보다 신경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며, O형인 사람들은 외향성 점수가 더 높고, A형인 사람들은 원만성이 높고, AB형인 사람들은 성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4가지 가설을 확인해 보았다(Cramer & Imaike, 2002; Rinieris, Christodoulou, Stefanis, 1980; Rogers & Glendon, 2003). 만약 혈액형과 성격 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면 혈액형에 따라 성격의 5요인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 보았다.

### 방 법

#### 연구 대상

심리학 교양 수업 및 전공 수업을 듣는 대학생 204명이 설문에 참가하였다. 평균 연령은 21.3세(SD=2.3)였으며, 남녀 수는 각각 108명과 96명이었다. 혈액형에 대한 보고는 자기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A형이 61명(29.9%),

B형이 66명(32.4%), O형이 60명(29.4%), AB형이 17명(8.4%)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의 혈액형 비율(A형 : 34%, B형 : 27%, O형 : 28%, AB형 : 11%)<sup>2)</sup>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측정 도구**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Big Five mini test (Goldberg, 199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Big Five mini test는 Costa와 McCrae(1985)에 의해 개발된 NEO-Personality Inventory를 대신할 수 있는 검사로 참가자들의 설문 참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격특징을 묘사하는 40개의 형용사를 주고 본인이 “나는 내 자신을 \_\_\_\_\_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에 대입했을 때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9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1 : 전혀 아니다, 9 : 전적으로 그렇다). 이전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외향성이 0.86, 원만성이 0.72, 신경증이 0.85, 개방성이 0.79, 성실성이 0.78로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Goldberg, 1992), 본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측정한 내적 합치도도 외향성이 0.85, 원만성이 0.66, 신경증이 0.77, 개방성이 0.67, 성실성이 0.78로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점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문 응답자의 절반은 설문의 앞부분에서 혈액형을 표시하게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설문 응답이 모두 끝난 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혈액형에 따라 성격의 5요인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액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각의 5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변량 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일원 변량 분석 결과, 5요인 모두에서 혈액형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혈액형 집단에 비해 O형이 가장 높은 외향성 점수를 보이고, B형이

표 1. 혈액형 집단별 Big 5 평균

|     | A형<br>(n=61) | B형<br>(n=66) | O형<br>(n=60) | AB형<br>(n=17) | F (df)        |
|-----|--------------|--------------|--------------|---------------|---------------|
| 외향성 | 43.39        | 39.78        | 41.90        | 38.64         | 1.642(3, 200) |
| 신경증 | 41.11        | 42.89        | 43.83        | 45.65         | 1.119(3, 200) |
| 원만성 | 49.00        | 48.22        | 47.21        | 47.94         | .561(3, 200)  |
| 성실성 | 47.62        | 46.47        | 46.78        | 47.05         | .258(3, 200)  |
| 개방성 | 46.14        | 45.44        | 47.43        | 48.53         | .824(3, 200)  |

\*\*\**p*<.001, \*\**p*<.01, \**p*<.05

가장 높은 신경증 점수를 보이고, A형이 가장 높은 원만성 점수를 보이며, AB형이 가장 높은 성실성 점수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연구 가설들은 기각되었다(표 1). 즉,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 같이 혈액형과 성격의 5요인 간에 실질적인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연구 2**

연구 1을 통해서 기존의 서양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혈액형과 5요인으로 평가한 성격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성격의 5요인은 사람들이 각 혈액형의 성격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내용들(예. A형은 소심하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혈액형 고정관념에 대한 믿음이 성격에 미치는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혈액형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형태로 개인의 성격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 2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로 연구 2-1에서는 사람들이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각각의 혈액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특징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연구 2-2에서는 연구 2-1에서 얻어진 혈액형 고정관념 형용사를 이용해 측정한 성격이 혈액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러한 차이가 혈액형 성격 유형학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2-3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액형 고정관념과 유사하게 자신의 성격을 보

2) 출처 : 아산병원 혈액은행  
(<http://www.amc.seoul.kr/~swkwon/QTF-3bltype.html>)

고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연구 2-1

### 방법

#### 연구 대상

심리학 교양 수업 및 전공 수업을 듣는 대학생 248명이 본 설문에 참가하였다. 평균 연령은 22.1세(SD=2.2)였으며, 남녀 수는 각각 161명과 87명이었다. 혈액형에 대한 보고는 자기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A형이 86명(34.7%), B형이 69명(27.8%), O형이 66명(26.6%), AB형이 27명(10.9%)으로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의 혈액형 비율(A형:34%, B형:27%, O형:28%, AB형:11%)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측정 도구 및 절차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형에 따른 성격 유형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 자신의 혈액형과 관련된 성격특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이용하는지 등의 혈액형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4문항

을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1=전혀 그러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그리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N=112) 실시한 예비 연구를 통해 수집된 12개의 혈액형별 성격특징 형용사들을 혈액형과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제시한 후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혈액형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비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각 혈액형의 대표적인 성격특징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거나 혹은 가장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형용사를 한 가지씩 쓰도록 하여, 가능한 대부분의 혈액형 별 성격특징 고정관념 형용사를 수집한 후, 그 중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보고된 형용사들을 추려내는 식으로 이루어 졌다(표 2).

질문지는 혈액형에 대한 설문이라는 점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문의 맨 처음에 혈액형을 표시하게 한 경우와 설문 응답이 모두 끝난 뒤 표시하도록 한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하였다.

### 결 과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응답자 248명 중 235명(90.7%)이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해 많이 접해보았다고 답한

표 2. 예비 연구에서 수집된 각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 형용사

|            |    |  |
|------------|----|--|
| A형<br>(명)  | 대표 | 소심하다(59), 꼼꼼하다(19), 내성적이다(17)  |
|            | 기타 | 얌전하다(3), 배려하다(2), 조용하다(2), 성실하다(2), 모범적이다(2), 고집세다(2), 신중하다(2) 등   |
| B형<br>(명)  | 대표 | 자유분방하다(15), 변덕스럽다(14), 다혈질이다(13)   |
|            | 기타 | 자기주장이 강하다(7), 쾌활하다(6), 까다롭다(5), 제멋대로이다(4), 특이하다(3), 괴팍하다(3), 직관적이다(2), 창조적이다(2), 외향적이다(2), 엉뚱하다(2) 등         |
| O형<br>(명)  | 대표 | 활달하다(31), 원만하다(21), 너그럽다(17)   |
|            | 기타 | 리더쉽있다(5), 외향적이다(4), 털렁댄다(4), 사교적이다(3), 개방적이다(3), 다혈질이다(2), 대범하다(2), 명랑하다(2), 헌신적이다(2), 우유부단하다(2), 낙천적이다(2) 등 |
| AB형<br>(명) | 대표 | 독특하다(38), 극단적이다(18), 예민하다(15)  |
|            | 기타 | 양면적이다(5), 영리하다(5), 변덕스럽다(5), 냉정하다(3), 계산적이다(2), 이상하다(2), 까다롭다(2), 소심하다(2), 꼼꼼하다(2), 극단적이다(2), 비정상적이다(2) 등    |

표 3. 각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 형용사

| 혈액형별 성격특징 형용사 | A형(%)  | B형(%)     | O형(%)     | AB형(%)    | $\chi^2$ (df=3) |           |
|---------------|--------|-----------|-----------|-----------|-----------------|-----------|
| A형            | 소심하다   | 203(81.9) | 30(12.1)  | 8( 3.2)   | 7( 2.8)         | 433.00*** |
|               | 꼼꼼하다   | 168(67.7) | 22( 8.9)  | 30(12.1)  | 28(11.3)        | 242.19*** |
|               | 내성적이다  | 174(70.2) | 24( 9.7)  | 16( 6.5)  | 34(13.7)        | 272.38*** |
| B형            | 자유분방하다 | 9( 3.6)   | 112(45.2) | 100(40.3) | 27(10.9)        | 128.67*** |
|               | 변덕스럽다  | 9( 3.6)   | 160(64.5) | 19( 7.7)  | 59(23.9)        | 231.10*** |
|               | 다혈질이다  | 13( 5.2)  | 157(63.3) | 46(18.5)  | 32(12.9)        | 202.93*** |
| O형            | 활달하다   | 12( 4.8)  | 64(25.8)  | 160(64.5) | 12( 4.8)        | 235.61*** |
|               | 원만하다   | 47(19.0)  | 13( 5.2)  | 183(73.8) | 5( 2.0)         | 330.90*** |
|               | 너그럽다   | 52(21.0)  | 15( 6.0)  | 171(69.0) | 10( 4.0)        | 272.48*** |
| AB형           | 독특하다   | 11( 4.4)  | 90(36.3)  | 17( 6.9)  | 130(52.4)       | 161.83*** |
|               | 극단적이다  | 11( 4.4)  | 103(41.5) | 18( 7.3)  | 116(46.8)       | 147.32*** |
|               | 예민하다   | 109(44.0) | 48(19.4)  | 19( 7.7)  | 72(29.0)        | 70.226*** |

\*\*\*  $p < .001$ , \*\*  $p < .01$ , \*  $p < .05$

반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정보를 매우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혈액형과 관련된 성격특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248명 중 197명(79.4%)이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에 대해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129명(52%)이 보통 이상으로 믿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을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100명(40.3%)이 보통이상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예비 연구에서 수집된 각 혈액형별 성격특징 형용사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관련이 있다고 표시하는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람들이 A형의 성격특징이라고 선택한 형용사로는 “소심하다”, “꼼꼼하다”, “내성적이다”가 있었으며, B형의 성격특징으로는 “변덕스럽다”, “다혈질이다”가 있었다. O형의 성격특징으로는 “활달하다”, “원만하다”, “너그럽다”가 선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AB형의 성격특징 고정관념으로는 “독특하다”가 선택되었다(표 3). 각각의 형용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특정 혈액형

의 성격특징을 더 잘 나타내 주는 형용사들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예비 연구에서 B형의 성격특징으로 수집되었던 “자유분방하다”는 본 연구에서는 O형의 특징으로도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B형에만 해당하는 성격특징으로 보기 어려워 B형 고정관념에서 제외하였으며, AB형의 성격특징 고정관념에서도 같은 이유로 “극단적이다”와 “예민하다”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언론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많이 받아온 B형보다도 A형의 성격특징이 의외로 가장 일치되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AB형이 가장 불일치되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2-1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통용되어왔던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 연구 2-2

이처럼 연구 2-1에서 얻어진 사람들이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2에서는 혈액형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형태로 개인의 성격을 측정할 경우, 혈액형에 따른 성격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2-1에서 얻은 혈액형별 성격특징 형용사들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각 혈액형별 고정관념 성격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믿음 수준이 이러한 차이와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믿음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혈액형별 성격특징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 방법

### 연구 대상

연구 2-1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 측정 도구 및 절차

연구 2-1에서 얻어진 혈액형별 고정관념 형용사에 대해 그 형용사가 자신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를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얼마나 혈액형별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성격특징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 그 점수들을 모아 개인마다 평균을 내어 혈액형별 고정관념 성격특징 점수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A형 성격특징 점수는 각각의 개인이 “소심하다”, “꼼꼼하다”, “내성적이다”라는 형용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매긴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식으로 얻어졌다. 마찬가지로 B형은 “변덕스럽다”와 “다혈질이다”, O형은 “활발하다”, “원만하다”, “너그럽다”, AB형은 “독특하다”라는 각각의 형용사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매긴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식으로 각 개인별로 혈액형별 고정관념 성격특징 점수를 구하였다(표 4).

표 4. 각 혈액형별 고정관념 성격특징 점수를 구하는데 사용된 형용사와 혈액형별 고정관념 성격특징 점수의 기술통계

| 혈액형 | 혈액형 성격특징 형용사      | 평균(N=248)  |
|-----|-------------------|------------|
| A형  | 소심하다, 꼼꼼하다, 내성적이다 | 3.19(0.69) |
| B형  | 변덕스럽다, 다혈질이다      | 3.10(0.71) |
| O형  | 활발하다, 원만하다, 너그럽다  | 3.57(0.56) |
| AB형 | 독특하다              | 3.15(0.75) |

\*5점 만점

질문지는 혈액형에 대한 설문이라는 점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문의 맨 처음에 혈액형을 표시하게 한 경우와 설문 응답이 모두 끝난 뒤 표시하도록 한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하였다.

### 자료 분석

혈액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각의 혈액형별 고정관념 성격특징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변량 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변인들에 대해서는 Tukey 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믿음 수준이 이러한 혈액형 집단별 자기 보고 성격특징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2-1에서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해 “대체로 믿지 않는다”거나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집단을 믿음 수준이 낮은 집단(N=119)으로, “대체로 믿는다”거나 “매우 믿는다”고 대답한 집단을 믿음 수준이 높은 집단(N=61)으로 분류한 후 일원 변량 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고,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변인들에 대해서는 Tukey 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혈액형 집단에 따라 5요인과는 달리 혈액형별 고정관념 성격특징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형인 사람들이 A형 성격특징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에 대해 O형과 AB형인 사람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F(3, 244)=6.179, p<.001$ , B형인 사람들도 B형 성격특징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특히 A형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F(3, 244)=3.884, p<.05$ . O형 성격특징과 AB형 성격특징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혈액형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AB형이 가장 높은 O형 성격특징을(예. 활발하다, 원만하다, 너그럽다) 보였으며,  $F(3, 244)=1.739, p<.05$ , B형이 가장 높은 AB형 성격특징을(예. 독특하다) 점수를 보였고,  $F(3, 244)=4.350, p<.01$ .



표 5. 혈액형에 따른 자기보고 혈액형 성격특징 점수의 차이

|          | A형<br>(N=86) | B형<br>(N=69) | O형<br>(N=66) | AB형<br>(N=27) | F        | 사후 검증   |
|----------|--------------|--------------|--------------|---------------|----------|---------|
| A형 성격특징  | 3.24(.63)    | 2.99(.62)    | 2.82(.62)    | 2.88(.62)     | 6.179*** | 1> 4, 3 |
| B형 성격특징  | 2.80(.97)    | 3.29(.88)    | 2.99(.87)    | 2.92(.74)     | 3.884*   | 2> 1    |
| O형 성격특징  | 3.62(.49)    | 3.41(.56)    | 3.65(.62)    | 3.67(.68)     | 2.719*   |         |
| AB형 성격특징 | 2.88(.94)    | 3.31(.87)    | 2.82(.86)    | 3.09(.62)     | 4.350**  | 2> 3    |

\*\*\* $p < .001$ , \*\* $p < .01$ , \* $p < .05$  1. A형 집단 2. B형 집단 3. O형 집단 4. AB형 집단

그리고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믿음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A형이 O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A형 성격특징을 보였으나,  $F(3, 57)=4.126$ ,  $p < .05$ , 믿음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유의미한 혈액형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3, 115)=1.934$ ,  $p = .128$ . 그리고 B형 성격특징의 경우도 믿음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B형이 A형과 O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B형 성격특징을 보였으나,  $F(3, 57)=3.609$ ,  $p < .05$ , 믿음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혈액형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3, 115)=0.632$ ,  $p = .569$ . O형 성격특징은 믿음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혈액형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O형이 제일 높은 O형 성격특징을 보고하여 혈액형 고정관념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결과나 나온 반면, 믿음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고정관념과 상관없이 AB형이 제일 높은 O형 성격특징을 보였다. AB형 성격특징에 있어서는 믿음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왜 각각의 혈액형 별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형과 B형에서만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난 것은 나머지 두 혈액형에 비해 보다 일관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B형의 경우는 전체 인구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연구 2-1에서도 보았듯이 다른 혈액형들에 비해 가장 덜 일관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어 고정관념에 대한 믿음이 성격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O형 특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격특징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다른 혈액형의 성격특징들에 비해 긍정적인 내용이

표 6. 믿음 수준에 따른 혈액형 별 자기보고 혈액형 성격특징 점수의 차이

|                     | A형       | B형         | O형        | AB형       | F         | 사후검증   |        |
|---------------------|----------|------------|-----------|-----------|-----------|--------|--------|
| 믿음 수준 낮음<br>(N=119) | A형 성격특징  | 3.13(.59)  | 2.90(.66) | 2.95(.66) | 2.66(.69) | 1.934  |        |
|                     | B형 성격특징  | 2.85(.91)  | 3.01(.87) | 3.14(.87) | 2.96(.80) | 0.632  |        |
|                     | O형 성격특징  | 3.58(.48)  | 3.52(.54) | 3.45(.63) | 3.71(.74) | 0.722  |        |
|                     | AB형 성격특징 | 2.98(1.00) | 3.28(.82) | 2.85(.90) | 3.19(.69) | 1.440  |        |
| 믿음 수준 높음<br>(N=61)  | A형 성격특징  | 3.37(.74)  | 3.00(.66) | 2.64(.61) | 3.00(.53) | 4.126* | 1>3    |
|                     | B형 성격특징  | 2.82(1.14) | 3.86(.77) | 2.89(.75) | 2.93(.56) | 3.609* | 2>1, 3 |
|                     | O형 성격특징  | 3.66(.60)  | 3.54(.42) | 3.96(.56) | 3.58(.63) | 1.739  |        |
|                     | AB형 성격특징 | 2.76(.87)  | 3.45(.82) | 2.78(.83) | 3.06(.56) | 2.070  |        |

\*\*\* $p < .001$ , \*\* $p < .01$ , \* $p < .05$  1. A형 집단 2. B형 집단 3. O형 집단 4. AB형 집단

많아, 자기 고양 편파(self-enhancement bias)로 인해 다른 혈액형의 사람들도 높은 점수를 매겨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 연구 2-3

연구2-2에서는 AB형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의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제 각각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혈액형별 성격특징 점수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성격을 평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A형의 일반적인 혈액형 고정관념은 “조심하다”이지만 자신은 A형의 고정관념이 “월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있다면, 위의 연구 2-2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혈액형 고정관념에 따라 자신의 성격을 평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검사 상에서는 고정관념에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2-3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개인별로 개인이 가진 혈액형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평가하는 경향성을 ‘혈액형 성격특징 고정관념과 자기 보고 성격의 일치도’라는 점수로 산출해 보았다. 믿음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생각하는 혈액형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성격을 평가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어떠한 특성이 혈액형 고정관념과 자기 보고 성격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 대상

연구 2-1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 측정 도구 및 절차

연구 2-1에서 응답자들이 본인의 혈액형에 해당하는 혈액형 고정관념이라고 표시한 형용사들을 추출하여, 그 형용사가 본인을 얼마만큼 나타내주는 것 같은지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한 후 평균을 구하였다.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점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문 응답자의

절반은 설문의 앞부분에서 혈액형별 고정관념 형용사를 보았을 때 떠오르는 혈액형을 표시하게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혈액형 고정관념 형용사들을 혈액형에 대한 언급 없이 제시한 상태에서 각 형용사가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를 먼저 표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혈액형에 대한 설문이라는 점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문의 맨 처음에 혈액형을 표시하게 한 경우와 설문 응답이 모두 끝난 뒤 표시하도록 한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하였다.

#### 자료 분석

믿음 수준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내용에 맞추어 자기 자신의 성격을 보려는 경향의 정도가 다른지를 보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했던 개인별 혈액형 고정관념과 보고된 성격의 일치도를 구해 독립표본 t-test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혈액형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2-1에서 얻어진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에 대한 믿음이나 이용과 같은 태도 점수와 혈액형 고정관념과 자기 보고 성격 일치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 결 과

예상했던 것처럼 믿음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혈액형 고정관념과 보고된 성격의 일치도를 보였다,  $t(177)=2.820, p<.01$ . 그리고 각각의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태도가 혈액형 고정관념과 성격 일치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믿음 수준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믿음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혈액형별 성격특징을 많이 접해보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혈액형 성격특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과 더 일치하는 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보고하였다(표 7). 그러나 믿음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일치하게 자신의 성격을 평가하는 정도가 혈액형에 대한 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믿음수준이 높은 집단 : 혈액형 고정관념 자기보고 성격일치도와 주요 태도변인 간의 상관

|                         | 고정관념<br>접해본 빈도 | 고정관념<br>지식 | 고정관념<br>믿음 | 고정관념<br>이용 |
|-------------------------|----------------|------------|------------|------------|
| 고정관념과<br>보고된 성격의<br>일치도 | .308*          | .343**     | .165       | .159       |

\*\* $p < .01$ , \* $p < .05$

### 논 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성격의 대표적 특질들인 5요인과 혈액형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을 5요인이 아닌 혈액형별 고정관념 형용사로 측정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혈액형에 따른 성격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을 강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스스로의 성격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보다 일관된 고정관념을 확보하고 있는 혈액형일수록 이러한 혈액형에 따른 성격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 A형).

이 결과는 혈액형과 성격 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 둘 간에 연관성이 생겨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혈액형 고정관념에 대한 믿음은 그 대상(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고정관념에 의해 파생된 이러한 행동이 다시금 고정관념을 강화시켜 주는 순환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혈액형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적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결국 인식자의 판단이나 예측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실제의 변화를 창조해내게 되는 것이다(Jussim, 1991).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고정관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혈액형을 비롯한 많은 성격 유형학들이 유사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일반 대중에게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성격 심리적 접근이 이루어진 적이 없던 영역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액형과 성격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존의 논쟁으로부터 관점을 달리하여, 실제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혈액형에 대한 믿음이 성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확인해 본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왜 동양 문화권에서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이 더 많이 믿어질까?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혈액형별 고정관념에 대한 믿음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어떻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이러한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형성 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양의 경우 혈액형별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아, A형과 O형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B형과 AB형은 극히 적다고 한다(미국 A : 42%, B : 10%, O : 45%, AB : 3%). 게다가 개인들이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이에 비해 A, B, O, AB형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며(한국 A : 34%, B : 27%, O : 28%, AB : 11%),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이 통용되기에 좋은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sup>3)</sup>

다음으로 아시아 문화권에서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이 선호되는 이유는 그 어느 문화권보다도 대인관계가 중요시되는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Suh(2002)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북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훨씬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기 정체감이 바뀌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자기 정체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점

3) 인종 별 혈액형 분포( A B O AB 순서-%)

한국 34 27 28 11 일본 38 22 29 11

미국 42 10 45 3 영국 42 8 47 3

출처 : 아산병원 혈액은행

(<http://www.amc.seoul.kr/~swkwon/QTF-3bltype.html>)

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혈액형별 성격유형학은 타인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효율적인 이해를 얻게 해 대인관계 불안을 순간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간단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듯한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을 통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을 줄여보려는 것이다.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대중적인 자료들이 대부분 혈액형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평옥, 2000; 주창기, 2000).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법은 또한 개인 자신이 아니라 한 그룹원으로서의 자신의 구별되는 특징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최적 구별 이론(Optimal Distinctiveness Theory; Brewer, 1991)에 따르면 자기 동일시(self-identification)의 이면에는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은 소속 욕구(affiliation desire)와 함께 타인과 구별되고 싶은 차별화 욕구(differentiation desire)라는 두 가지 기본적 동기가 있다고 한다(Pickett, Bonner, & Coleman, 2002). 집단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자기 정형화(self-stereotyping)는 이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정형화의 좋은 예로 한국에서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혈액형과 관련된 성격에 대한 자료를 나누며 자신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동시에 다른 혈액형의 사람들과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더 낮은 자기 개념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 더 강한 바넘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Choi & Choi, in press).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여러 개의 자아(many selve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념이 불안정하며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시아인들은 어떤 성격적 피드백에 대해서도 그에 해당하는 근거를 자신의 다양한 자기 관련 지식 중에서 더 잘 찾아내기 때문에 바넘 유형의 모호한 성격 피드백을 더 잘 수용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혈액형별 성격 유형학이 더 많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렇게 형성된 혈액형별 성격특징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력하여 사회적 수준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렇게 강한 사회적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시키지 못한 채 혈액형에 따른 실제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만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본 연구에서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과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인구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다소의 제한점이 있었는데, AB형의 경우는 너무 적은 숫자의 성격특징 고정관념 형용사가 선정되었고, O형의 경우는 다른 혈액형 고정관념 형용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AB형과 O형을 제대로 대표하는 혈액형 고정관념 성격특징 점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믿음과 실제 성격 차이 간의 관계를 완전한 인과 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연구2에서처럼 성격을 고정관념과 관련된 형용사로 측정할 경우 인지적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혈액형별 성격특징에 대한 믿음이 실제 일상 생활에서 미치는 행동적 결과(예. 대인관계, 직업선택 등)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혈액형별 성격특징과 같은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론을 더 잘 믿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로써는 자기 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 낮은 사람들이 강한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와 바넘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Smith, Jussim, & Eccles, 1999; Choi & Choi, in press)

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혈액형에 따른 성격 유형에 대한 피드백은 바넘 유형의 피드백처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모호하기 보다는 한 가지 혈액형의 주 특징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담고 있으므로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도 자신의 자기 개념과 실제로 일치하는 경우 혈액형과 관련된 성격 피드백을 더 강하게 믿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혈액형에 대한 믿음이 높은 집단 중에서도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어떤 행동 특징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면 사람들이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론을 믿게 되는 과정을 알아내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평옥 (2000). 혈액형을 알아야 성공한다 : 혈액형에 따르는 자기 개발과 성공의 비법. 서울 : 경영자료사.
- 주창기 (2000). 당신의 혈액형이 성공을 말해준다 서울 : 평단문화사.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pp. 680-740). Boston, MA : McGraw-Hill.
- Beardmore, J. A., & Karimi-Booshehri, F. (1983). ABO genes are differentially distributed in socio-economic groups in England. *Nature*, 303, 522-524.
- Bordens, K. S., & Horowitz, I. A. (2001).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 Erlbaum.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475-482.
- Cattell, R. B., Brackenridge, C. J., Case, J., Probert, D. N., & Sheehy, A. J. (1980). The relation of blood types to primary and secondary personality traits. *The Mankind quarterly*, 21, 35-51.
- Choi, I., & Choi, S. (In press). Self-concept clarity and the barnum e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 Costa, P. T., & McCrae, P.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 McCrae, P. R. (1992a).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653-665.
- Cramer, K. M., & Imai, E. (2002). Personality, Blood type, and the five-factor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621-626.
- Davies, M. F. (1997). Positive test strategies and confirmatory retrieval processes in the evaluation of personality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574-583.
- Eysenck, H. J. (1977). Nation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as related to ABO blood group polymorphism. *Psychological Reports*, 51, 531-540.
- Furukawa, T. (1927). A study of temperament by means of human blood groups.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2, 612-634.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 Herrera, N. C., Zajonc, R. B., Wierzchowska, G., & Cichomski, B. (2003). Beliefs about birth rank and their reflection in re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142-150.
- Jussim, L. (1991). Social perception and social reality : A reflection-construction model. *Psychological Review*, 98(1), 54-73.
- Marutham, P., & Indira, J. P. (1990). A study of the possible relationship of blood types to certain personality variables. *Indi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 79-81.
- Mascie-Taylor, C. G. N & McManus, I. C. (1984). Blood group and socio-economic class, *Nature* 309, 395-396.
- Meehl, P. E. (1956). Wanted-A good cookbook. *American Psychologist*, 11, 262-272.
- Oakhill, J., & Garnham, A. (1993). On theories of belief bias in syllogistic reasoning, *Cognition*, 46, 87-92.

- Pickett, C. L., Bonner, B. L., & Coleman, J. M. (2002). Motivated self-stereotyping : Heightened assimilation and differentiation needs result in increased level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43-562.
- Rinieris, P. M., Christodoulou, G. N., & Stefanis, C. N. (1980). Neuroticism and ABO blood typ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 473-476.
- Rogers, M., & Glendon, I. (2003). Blood type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099-1112.
- Setterlund, M. B., & Niedenthal, P. M. (1993). "Who am I? Why am I here?" : Self-esteem, self-clarity, and prototype matc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769-780.
- Smith, A. E., Jussim, L., & Eccles, J. (1999). Do self-fulfilling prophecies accumulate, dissipate, or remain stabl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548-565.
- Snyder, M. (1984). When belief creates reality. In I.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8, pp. 247-305). new york :Academic press.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78-1391.
- White, M. J., Brockett, D. R., & Overstreet, B. G. (1993). Confirmatory Bias in evaluating personality test information : Am I really that kind of persona?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0(1), 120-126.

K C I

## **Beliefs about Blood Types and Traits and their Reflections in Self-reported Personality**

**Sohyun Cho      Eunkook M. Suh      Yoenjung Ro**  
Yonsei University

Individuals' beliefs about the association between blood types (A, B, O, AB) and personality was measured among 204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also rated their own personality on two different measures-the Big 5 inventory and a set of personality traits most frequently associated with each of the 4 blood types (stereotypic traits). Consistent with past research, no meaningful relationship emerged between the Big 5 traits and blood type. Interestingly, however, self-ratings on the stereotypic traits revealed a self-fulfilling pattern. Those who firmly believed in the validity of the blood type stereotyp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s/her trait in a stereotype-consistent direction (e.g., a blood type A person reports that she indeed is very "timid"). As expected, such stereotype-confirming tendency was not observed among the skeptics of this stereotype.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having a strong faith in the blood type stereotype might have a self-confirming effect on self-reports of personality.

**Key words : Blood types, personality typology, stereotypes, Big 5**

원고접수 : 2005년 10월 10일  
심사통과 : 2005년 11월 6일